

### 손금주·신정훈 4년만의 '리턴매치' 주목

#### ■나주·화순

무소속 손금주(48)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56·전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옷을 입은 손 의원은 51.10%의 득표율로 민주당 소속의 신 전 의원(44.22%)을 꺾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무소속 상태에서 재대결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계개편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 전남지사에 출마했던 신 전 의원이 명예회복을 노리며 손 의원의 불꽃 뛰는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손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서울행정법원 판사, 법부 법인 출신 변호사 등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에는 당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탄핵소추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국회 운영위·예결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들어 손 의원은 매달 나주와 화순에서 각각 '민원 소통의 날'을 열어 표를 결집하고 있고,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정책을 다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이 자주



손금주 김승철 신정훈 이인곤

오르내리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신 전 의원은 5·6대 전남도의회 의원과 재선 나주시장을 거쳐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신 전 의원은 민주당 호남특보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초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냈고, 지난해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정외대를 나왔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김영록 전 지사에서 패했다. 신 전 의원은 올 4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승철(50) 나주·화순 홍익포럼 이사장과 백다래(여·54) 사회문제 연구·정책가가 더불어 민주당 입당을 마치고 경선에 도전할 전망이다. 이들이 사실상 정치 신인들로 당내 경선에서

신 전 의원의 조직과 인지도를 이겨낼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관광수약사회 회장, 광산구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공동대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이사,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등을 역임했고, 백소장은 198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화순 출신으로는 정의당 김규환 산채원 대표, 무소속 이인곤 전남대·조선대 총동창회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신나물 되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수산청(해양수산부 전신), 진도부군수, 해양수산국장, 목포부시장 등을 지냈다.

/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이개호 3선 가도 '대항마' 누가 될까 관심

#### ■담양·함평·영광·장성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의 '국민의당 돌풍' 속에서도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이개호(59)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문재인 후보의 호남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림수산식품관으로 발탁돼 무난하게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장관 퇴임 이후 지역구에 내려와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 지역구는 사실상 이 의원의 독주 속에서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인가가 관심사다.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목포·여수 부시장,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1년 공직 퇴임 후 민주당 중앙위원 등을 거쳐 총선에 도전했지만



이개호 김선우 김영미

실패했다. 당시 담양·곡성·구례 민주당 통합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지역구가 통합되면서 새로 확정된 담양·함평·영광·장성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당시 이 낙연 후보에게 패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됐다가 지난달 개각 때 교체됐다.

이 의원의 맞선 민주당 후보로는 김선우(54) 문화복지방송·문화복지신문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를 지냈다. 정치광고, 여론조사,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또 민주당 후보로는 장성 출신 김영미(여·41)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영광 출신 정광일(61)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선거구가 4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만큼 당내 경선에서 후보들의 출신지별로 지역색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담양출신 권애영(여·56) 전 전남도의회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인 그는 제1야당 후보로 당이 결정만 하면 출마한다는 각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무소속·민주당 후보군 대결 속 우윤근 변수

#### ■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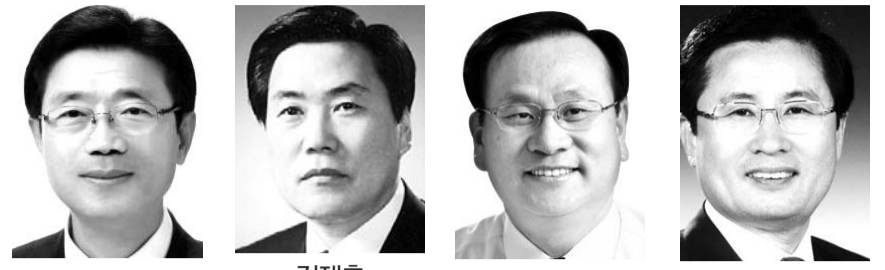
무소속 정인화(61) 국회의원과의 민주당 후보 간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주(動)러시아 대사를 맡고 있어 아직은 출마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62) 전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정인화 국민의당 후보가 녹색 돌풍을 타고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49.88%)로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37.67%)의 4선을 저지했다.

특히 타지역 이주 인구 비율이 높은 광양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곡성·구례가 한 선거구로 묶이면서 표심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대안 정치 세력으로 길을 걷는 정 의원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여수시 부시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부장 등을 지냈다.

우 전 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17대 총선 광양·구례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이 지역에서내 내리 3선을 했다.



정인화 김재휴 서종식 신홍섭



우윤근 유현주 이용재

또 민주당에서는 박근표(59) 전 YTN 시청자센터장, 서동용(55) 변호사, 서종식(60) 변호사, 신홍섭(60) 전 전남도의원과 안준노(58)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 감사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용재(57) 전남도의회 의장은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도 김재휴(68) 전 보성 부군수

와 김종대(69) 전 전남도당 부위원장, 박상욱(69) 전 광양시의 회장도 출마예상자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 대부분은 우 전 의원과 함께 정치를 해 온 인사들이어서 우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경선 구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서 선거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았던 유일한 여성 후보 유현주(48) 전 전남도의회도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현역에 맞선 민주당 김승남·박병중 경쟁 치열

#### ■고흥·보성·장흥·강진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민주당화당 황주홍(67) 의원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양당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구다. 이에 따라 황 의원에 맞선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 출신인 황 의원은 3선의 강진군수에 이어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통합당 후보로 장흥·강진·영암 선거구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바뀌었는데도 지역색을 극복하며 국민의당 옷을 입고 재선에 성공했다. 법안만 651건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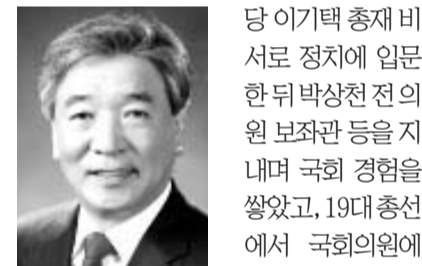
하지만, 평화당의 정당지지가 바닥을 치고 설상가상으로 당이 분열되면서 황 의원에 내년 총선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율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든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조직력 싸움에 승부를 걸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인 김승남(53) 전 국회의원, 김수정(58) 정책위원회 부의장, 박병중(65) 전 고흥군수 등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고흥 출신인 김 전 의원은 1993년 민주당



황주홍 김수정 김승남 김화진



박병중

부총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숙박투어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 지역의 당 조직을 정기적으로 돌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선 4-6기 3선 고흥군수를 지낸 박병중 전 군수도 출마를 저울질중이다. 군수 3선을 지낸 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총선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가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파 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는 관측하고 있다.

김수정 부의장도 부지런히 지역을 오가며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보성 출신인 김 부의장은 제13대 평화민주당 전국국회의원인 고 김주호씨의 딸로, 지역 인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김 부의장은 정치신인에게 기본 20%의 가산점을 주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일 경우 5%를 더 얹어주는 경선룰에 승부를 걸고 있다. 강진원 전 군수는 경선 룰 등을 살펴 보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에서는 고흥 출신인 김화진 지역위원장이 지역구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 고흥군 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안철수 대선 후보 조직총괄 부분부장관과 전남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2019 강원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 결과 공고



# 50만

## “희망의 응원”

소중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피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강원 산불 피해 이웃들을 위해 긴급모금을 실시했고, 약 50만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신 강원도청과 언론사 및 관계기관, 봉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9 강원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모금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 모집 내역 (2019. 8. 8 기준)	지원 내역
모집 금액 362억3천886만706원	지원 금액 1차(2019.4.30.) 799세대 115억6천600만 원
모집 물품 약 37만 점	2차(2019.7.23.) 876세대 220억7천332만 원
	지원 물품 약 37만 점

※ 희망브리지는 산불 피해이웃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후원 문의 1544-9595 | www.relief.or.kr